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

안주엽* · 김복순**

I. 머리말

2010년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을 맞이하면서 이들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가 진행되면서 심각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국민연금을 수급하기 이전에 은퇴를 맞이한 이들이 생계를 위하여 대거 자영업으로 진출하였을 때, 대부분 비교역재의 특성을 갖는 자영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일정함을 감안한다면, 자영업의 수익률이 하락할 개연성이 높고 이는 곧 자영업이 곤경에 처하게 되어 베이비부머의 은퇴, 자영업 창업,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온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2011년 8월을 기점으로 반전된 후 2012년 8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123천 명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 이러한 우려가 실제 나타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¹⁾는 2011년 현재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 17.8%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향후 경제활동상태는 저출산 고령화와 맞물려 전체적 노동력 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와 이전(1950~1954년생), 이후(1964~1968년생) 세대의 고용현황을 각종 노동시장지표를 활용하여 비교해 보고, 세대간 경제활동양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가 점유하고 있는 일자리, 잃어버린 일자리를 살펴보고, 나아가 다시 찾은 일자리의 특성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jyahn@kli.re.kr),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위원(seesaram@kli.re.kr).

1) 베이비붐 세대는 합계출산율이 3.0% 이상인 연령대가 일정기간 연속적으로 유지된 인구 코호트를 의미하며, 미국은 1946~1964년까지, 일본은 단카이 세대라고 하여 1947~1949년에 해당한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는 1955~1963년생으로 한정한다.

II. 베이비붐 세대의 생애노동

1.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에서 현주소

다음 <표 1>과 <표 2>는 베이비붐 세대의 최근 경제활동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2011년 현재 베이비붐 세대는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 1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세대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76.8%, 75.3%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베이비붐 세대의 미취업자는 2011년 현재 1,804천 명으로 전년대비 9천 명이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둔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미취업자 중 1년 이내 일자리를 잃은 경험이 있는 실직경험자는 581천 명으로 미취업자의 3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보면, 2011년 현재 임금근로자는 전년대비 20천 명 감소하였으나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용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베이비붐 세대에서의 일용직 근로자는 2011년 현재 476천 명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1년 현재 베이비붐 세대의 비임금근로자는 2,065천 명으로 취업자의 37.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와 무급가족종사자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23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세로 전환하여 전년대비 18천 명 증가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진

<표 1> 베이비부머의 주요 노동시장 지표

(단위 : 천 명)

	2009	2010	2011	2012. 8
생산가능인구	7,245 (-34)	7,326 (80)	7,292 (-34)	7,268 (26)
경제활동인구	5,628 (-100)	5,660 (32)	5,603 (-57)	5,534 (64)
(경제활동참가율)	77.7 (-1.0)	77.3 (-0.4)	76.8 (-0.4)	76.1 (-0.6)
취업자	5,491 (-122)	5,531 (40)	5,488 (-43)	5,420 (67)
(고용률)	75.8 (-0.1)	75.5 (-0.3)	75.3 (-0.2)	74.6 (-0.1)
실업자	137 (22)	129 (-7)	116 (-14)	114 (-3)
비경제활동인구	1,617 (66)	1,666 (48)	1,688 (23)	1,734 (-38)
미취업자(=실업+비경제활동)	1,754 (88)	1,795 (41)	1,804 (9)	1,848 (-41)
실직경험자(1년 미만)	556 (52)	578 (22)	581 (3)	609 (-30)

주: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감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행되어온 자영업 부문에서의 구조조정이 2011년 8월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반전되었고, 50세 이상 중고령층을 주축으로 자영업 창업이 활발했던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자영업자의 증가세는 2012년에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에서의 자영업은 등락을 경험하면서 2012년(1~8월 평균) 현재 전년동기대비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베이비부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고용증감 및 비중 변화

(단위: 천 명, %)

	2009	2010	2011	2012. 8
취업자	5,491 (-122)	5,531 (40)	5,488 (-43)	5,420 (-67)
임금근로	3,364 (-35)	3,443 (78)	3,423 (-20)	3,379 (-31)
상용직	1,827 (53)	1,930 (103)	1,935 (5)	1,969 (48)
임시직	989 (-38)	1,011 (22)	1,012 (1)	956 (-64)
일용직	549 (-50)	502 (-47)	476 (-25)	454 (-15)
비임금근로	2,127 (-87)	2,088 (-39)	2,065 (-23)	2,041 (-36)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566 (1)	543 (-24)	504 (-39)	490 (-1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181 (-74)	1,173 (-8)	1,192 (18)	1,203 (-3)
무급가족종사자	380 (-13)	373 (-7)	370 (-3)	348 (-20)
취업자 중 비중				
임금근로	61.3 (0.7)	62.2 (1.0)	62.4 (0.1)	62.3 (0.2)
상용직	33.3 (1.7)	34.9 (1.6)	35.3 (0.4)	36.3 (1.3)
임시직	18.0 (-0.3)	18.3 (0.3)	18.4 (0.2)	17.6 (-1.0)
일용직	10.0 (-0.7)	9.1 (-0.9)	8.7 (-0.4)	8.4 (-0.2)
비임금근로	38.7 (-0.7)	37.8 (-1.0)	37.6 (-0.1)	37.7 (-0.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0.3 (0.2)	9.8 (-0.5)	9.2 (-0.6)	9.0 (-0.1)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1.5 (-0.9)	21.2 (-0.3)	21.7 (0.5)	22.2 (0.2)
무급가족종사자	6.9 (-0.1)	6.7 (-0.2)	6.7 (0.0)	6.4 (-0.3)
임금근로자 중 비중				
상용직	54.3 (2.1)	56.1 (1.8)	56.5 (0.5)	58.3 (1.9)
임시직	29.4 (-0.8)	29.4 (0.0)	29.6 (0.2)	28.3 (-1.6)
일용직	16.3 (-1.3)	14.6 (-1.7)	13.9 (-0.7)	13.4 (-0.3)
비임금근로자 중 비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6.6 (1.1)	26.0 (-0.6)	24.4 (-1.6)	24.0 (-0.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55.5 (-1.2)	56.2 (0.6)	57.7 (1.5)	59.0 (0.9)
무급가족종사자	17.9 (0.1)	17.8 (0.0)	17.9 (0.1)	17.1 (-0.7)

주: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고용증감, 고용비중 변화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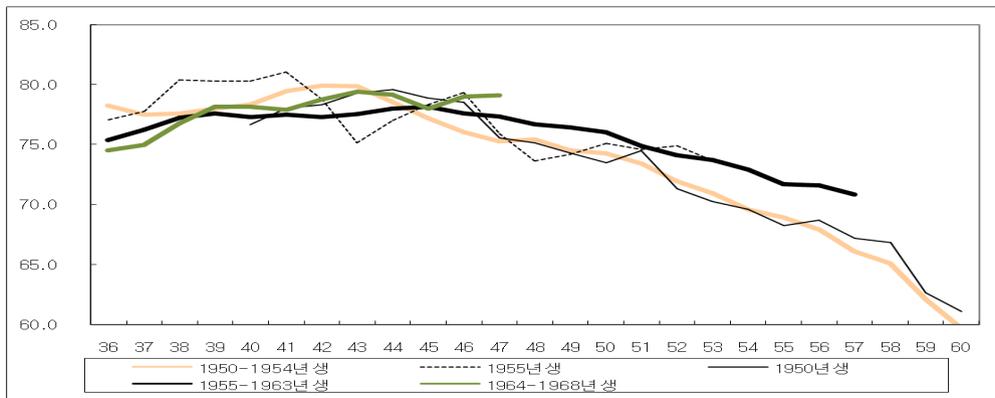
2. 베이비붐 세대와 이전 세대의 비교

<표 3>은 베이비붐 세대와 이전 세대의 출생코호트별·연령별 고용률과 자영업·상용직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지표는 이전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은퇴가 시작된 1955년생의 경우 이전 세대의 동일 연령의 고용률에 비해 높으며, 특히 은퇴시작시기인 55세의 경우 이전 세대에 비해 고용률이 2.9%p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과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이 이전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림 2]에서 보듯, 베이비붐 세대와 이전 세대 간 고용률의 차이는 여성으로부터

[그림 1] 출생코호트별·연령별 고용률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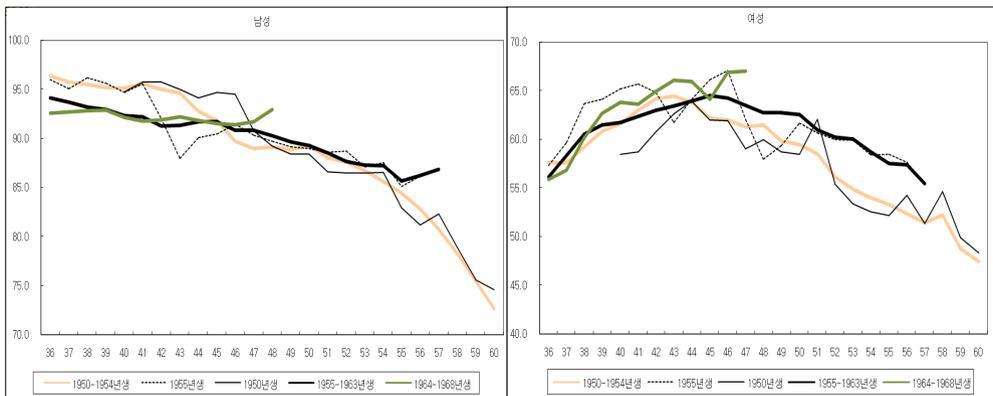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2] 출생코호트별·성별·연령별 고용률 패턴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3〉 출생코호트별 생애노동

(단위 : %)

	1950~1954년생			1955~1963년생			1950년생			1955년생		
	45세	50세	55세	45세	50세	55세	45세	50세	55세	45세	50세	55세
고용률	77.2	74.3	68.9	78.1	76.0	71.7	78.9	73.5	68.3	78.3	75.1	71.8
취업자 중 자영업 비중	37.8	38.3	36.1	32.2	32.7	32.9	38.4	41.3	38.4	35.6	35.9	34.3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	53.9	45.9	49.7	50.9	53.5	56.4	55.4	44.6	46.5	49.0	47.3	54.8

주 : 자영업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합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4〉 출생코호트별·성별 생애노동

(단위 : %)

		1950~1954년생			1955~1963년생			1950년생			1955년생		
		45세	50세	55세	45세	50세	55세	45세	50세	55세	45세	50세	55세
남성	고용률	91.8	89.3	84.4	91.7	89.3	85.7	94.7	88.4	82.9	90.5	89.0	85.1
	취업자 중 자영업 비중	46.2	46.8	43.5	39.7	40.6	40.8	45.8	49.1	43.3	44.2	45.5	43.1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	69.7	61.6	64.5	66.8	68.7	70.3	69.3	63.3	59.3	67.1	66.8	68.9
여성	고용률	62.2	59.5	53.3	64.5	62.6	57.5	62.0	58.5	52.2	66.2	61.7	58.5
	취업자 중 자영업 비중	25.2	25.8	24.4	21.3	21.4	21.0	26.3	29.4	29.8	23.8	22.5	21.3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	27.7	22.9	26.8	28.2	32.2	37.4	29.6	16.7	21.9	21.9	21.4	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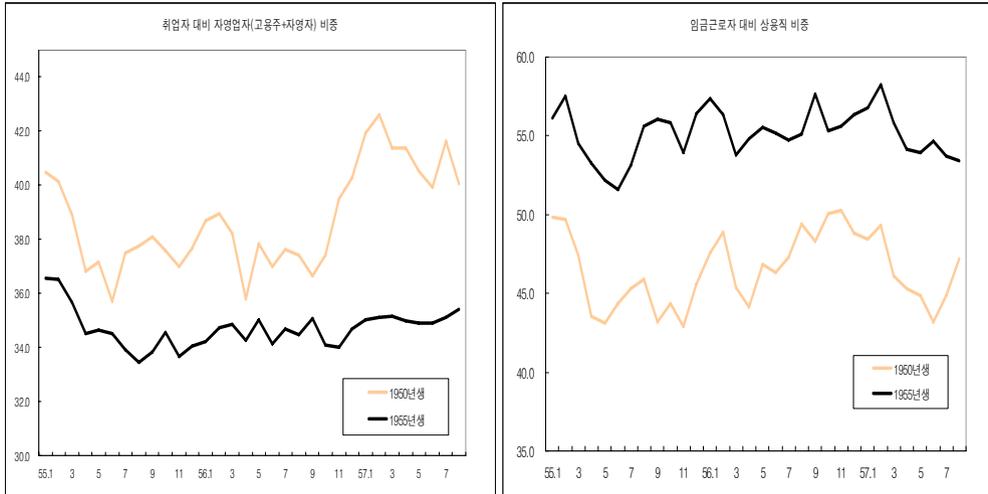
주 : 자영업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합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기인하는 측면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1955년생 여성이 55세일 때 고용률은 58.5%로 이전 세대인 1950년생 여성이 55세일 때 고용률 52.2%보다 6.3%p 높아 남성의 2.2%p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상용직 비중은 여성을 중심으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그림 3]은 베이비붐 세대 중 1955년생이 55세가 되었던 2010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과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전 세대인 1950년생이 55세가 되던 시기와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도 고용률의 급격한 하락을 겪지 않은 55세와 56세 시기 중 자영업 비중은 35% 전후한 수준에서 상승추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으며, 이전 세대의 동일 연령 시기와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57세가 되는 2011년에 다소 상승하는 듯하나 40%를 넘는 수준으로 급상승했던 이전 세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 역시 55%를 중심으로 계절적 변동을 보이기는 하지만 55세 이후 급속한 하락추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으며, 이전 세대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3] 출생코호트별 · 연령별 자영업자 비중과 상용직 비중

(단위 : %)



주 : 1950년생은 2005년 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1955년생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대상으로 함.
 자영업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합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3. 베이비붐 세대는 무슨 일을 겪고 있는가?

앞에서 코호트 분석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 상태는 이전 세대에 비해 양호한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은퇴시작시기인 55세의 경우 상용직의 비중이 이전 세대에 비해 상당히 높고, 고용률 또한 여성을 중심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 중 1955년생이 은퇴를 시작한 시기인 2010년 산업별 분포를 보면 이전 세대인 1950년생의 2005년에 비해 제조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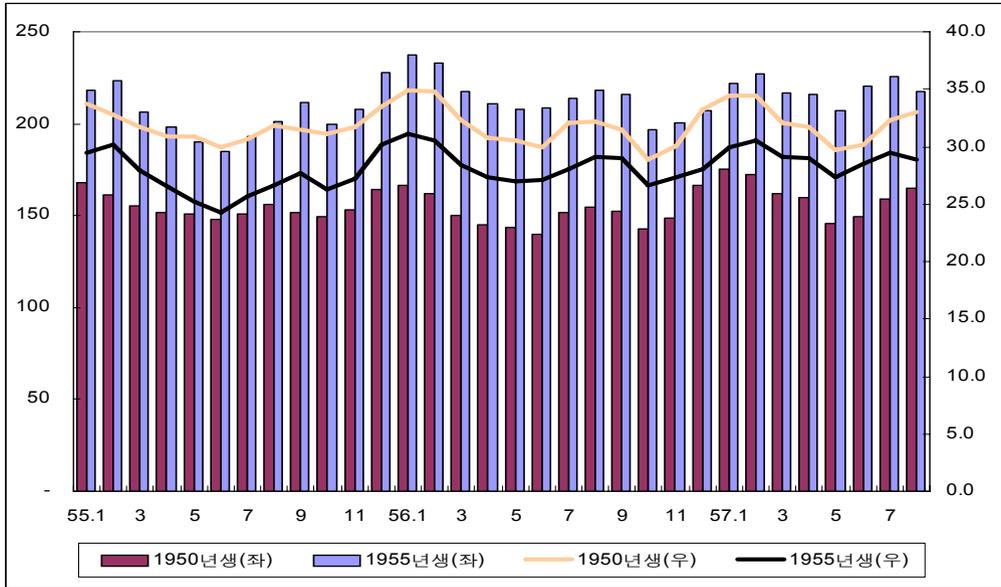
그렇다면 베이비붐 세대 중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한 미취업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가장 최근 일자리를 잃은 1개월 실직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2)

베이비붐 세대의 미취업자 규모는 2012년 8월 현재 217천 명으로 이전 세대의 동일 연령층의 165천 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만 미취업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를 통해 55세 은퇴 이후 이전 세대의 미취업률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코호트 분석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50세 이상 중고령층에서의 미취업자 중 비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전 세대의 동일 연령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베이비붐 세대의 미취업자와 1개월 실직자는 1955년생을 기준으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자료를 활용하였고, 이전 세대는 1950년생을 기준으로 2004년 12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림 4] 1950년생과 1955년생 연령별 미취업자 규모와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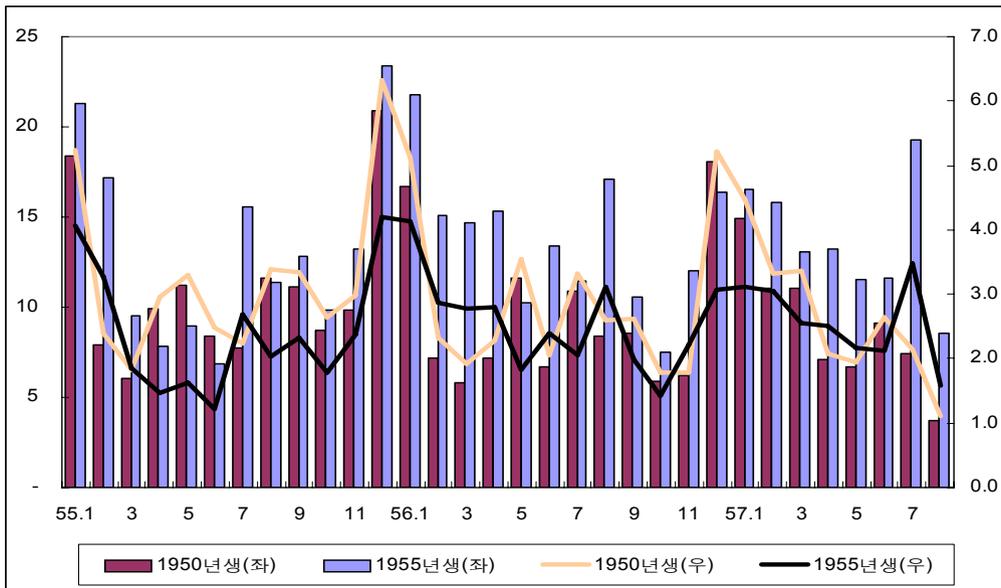
(단위: 천 명,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5] 1950년생과 1955년생 연령별 1개월 실직자 규모와 비중 추이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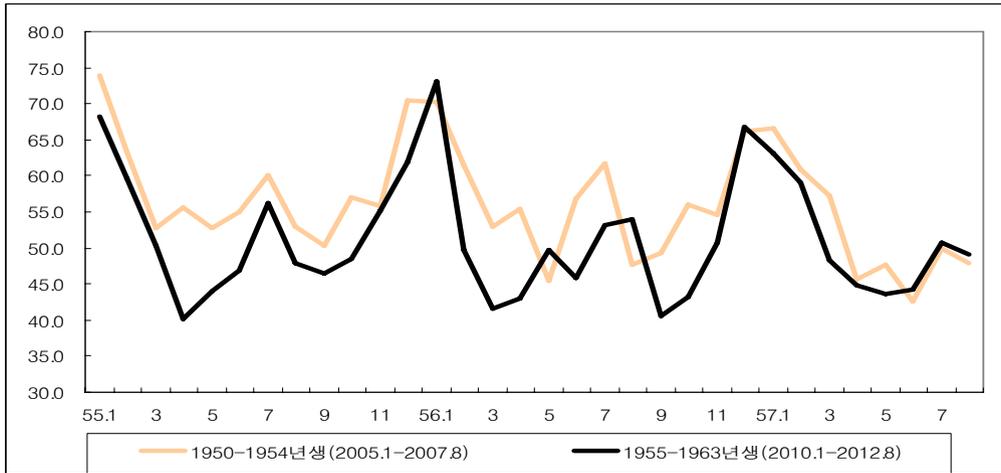


주: 1개월 실직자는 조사 당월에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 중 조사전달에는 취업상태였던 자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베이비붐 세대인 1955년생 중 가장 최근 일자리를 잃은 1개월 실직자의 규모는 9천 명으로 조사전월 취업자 대비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세대인 1950년생 동일 연령대보다 다소 높지만 추세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1개월 실직자를 대상으로 이직사유를 살펴본 결과 또한 이전 세대와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림 6]은 베이비붐 세대와 이전 세대 간 1개월 실직자 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자가

[그림 6] 베이비붐 세대와 이전 세대의 비자발적 이직 비중(1개월 실직자 기준)

(단위 : %)



주: 비자발적 이직사유는 정년퇴직·연로, 직장의 휴·폐업, 명예·조기퇴직·정리해고,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일자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 악화에 해당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5] 1개월 실직자와 비자발적 이직자의 규모

(단위: 천 명, %)

		55세	56세	55세 (1~8월 평균)	56세 (1~8월 평균)
1950년생	신규1개월 실직자 수	11	9	9	10
	(비중)	(3.3)	(2.9)	(2.9)	(2.8)
	비자발적 이직자 수	6	6	6	6
	(비중)	(56.6)	(61.3)	(60.1)	(65.1)
당해연도 취업자 수		334	327	320	339
1955년생	신규1개월 실직자 수	13	14	15	14
	(비중)	(2.4)	(2.5)	(2.7)	(2.6)
	비자발적 이직자 수	8	8	8	8
	(비중)	(57.9)	(55.0)	(52.0)	(56.5)
당해연도 취업자 수		548	542	546	533

주: 1개월 실직자는 조사 당월에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 중 조사전달 취업상태인 자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차지하는 비중이 유사한 흐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코호트 분석 결과 베이비붐 세대인 1955년생의 은퇴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근까지의 미취업률, 1개월 실직자가 차지하는 비중, 1개월 실직자의 이직사유를 살펴보면 이전 세대의 동일 연령대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 베이비붐 세대에서 고용의 변화는 크게 감지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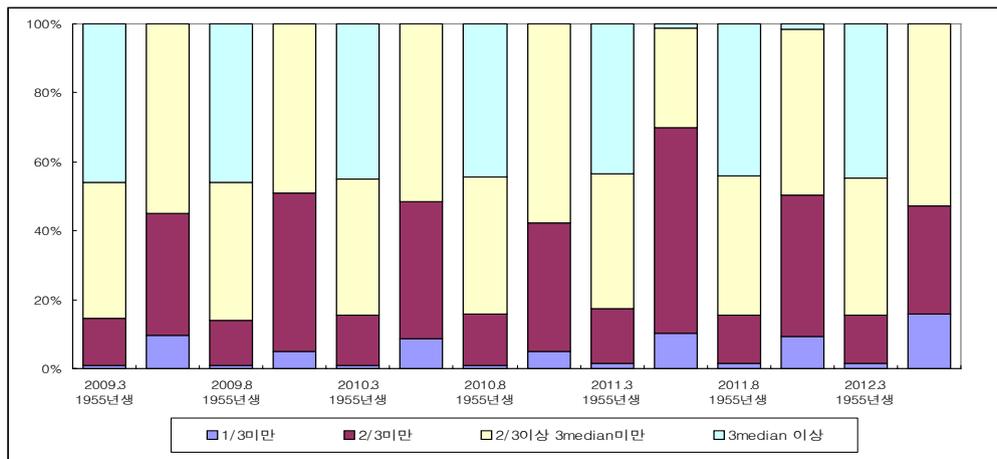
4. 베이비붐 세대의 다시 찾은 일자리는 어떠한가?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상태는 이전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미취업률이 나 1개월 실직자 비중 또한 이전 세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베이비붐 세대가 점유하고 있는 일자리의 임금수준은 어떠한가?

베이비붐 세대인 1955년생의 저임금 근로자는 2012년 3월 현재 임금근로자의 29.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1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아직까지는 이들 세대에서의 은퇴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상용직을 중심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시간당 중위임금의 1/3 미만인 초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3.7%로 증가하였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 중 당월취업자의 초저임금 근로자는 15.8%로 급증하였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고용사정이 좋지 않았던 2009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들 세대에서는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이후 다급하게 임금근로로 간 사람들은 불안정하고 열악한 상태의 일자리로 진입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7〕 1955년생 임금근로자와 당월취업자의 임금수준

(단위 : %)



주: 임금수준은 시간당 임금의 중위값(median)을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비임금근로자(2011년 8월 현재) 중 2010년 1월 이후 창업은 13.7%로 나타나 이전 세대인 1950년생의 은퇴시기였던 2005년 1월 이후 창업비중(28.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의 2010년 이후 창업은 주로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기타개인서비스업과 금융보험업에서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전 세대보다도 서비스업종에서의 창업이 더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베이비붐 세대에서의 2010년 1월 이후 창업한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은 주로 ‘본인 또는 가족이 마련한 목돈(적금, 퇴직금, 명퇴금 등)’ 59.6%, ‘별도의 자본이 필요 없었음(사업승계, 무자본 창업)’ 26.6%로 나타나 퇴직금, 명퇴금이나 무자본창업을 중심으로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대에서의 은행이나 보험회사, 상호신용금고로부터의 대출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영업 창업 시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10년 이후 창업한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중심으로 2천만 원 미만의 소자본을 활용하여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비임금근로자(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의 창업시기별·산업별 분포
(단위: 천 명, %)

	1955년생		1950년생	
	10.1월 이전 창업	10.1월 이후 창업	05.1월 이전 창업	05.1월 이후 창업
	158 (100.0)	25 (100.0)	79 (100.0)	32 (100.0)
농림어업	20 (12.9)	1 (3.6)	21 (26.9)	5 (16.3)
건설업	11 (6.9)	0 (0.0)	4 (5.4)	3 (8.3)
제조업	16 (9.8)	3 (11.6)	7 (8.3)	1 (3.9)
서비스업	111 (70.3)	21 (84.8)	47 (59.4)	23 (71.5)
도소매업	37 (23.1)	4 (15.7)	14 (17.1)	5 (16.5)
운수업	34 (21.5)	4 (14.0)	14 (17.9)	6 (18.3)
음식숙박업	18 (11.6)	2 (8.1)	9 (11.9)	2 (7.5)
금융보험업	1 (0.4)	3 (10.1)	0 (0.0)	1 (1.6)
기타 개인서비스업	10 (6.6)	8 (32.2)	6 (7.0)	7 (21.4)

주: ()안은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Ⅲ. 맺음말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현재 경제활동상태는 각종 고용지표를 통해 이전 세대보다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직까지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활발하지 않아 이전 세대인 1950년생의 은퇴시점인 55세와 비교해 보면 상용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미취업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호트 분석을 통해 본 고용률 지표는 이전 세대보다 높았으며, 이는 여성의 기여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대간 고용률 패턴에서 확인했듯이 향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고용률은 이전 세대와 유사하게 급격히 하락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노동력 부족현상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감으로써 이들이 장기간 쌓은 숙련된 기술과 기능을 이후 세대가 제대로 전수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의 정비도 필요할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심각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들 세대의 은퇴를 늦추기 위한 정년연장 등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고령친화적인 산업을 육성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KLI**

<참고문헌>

- 김용하·임성은(2011),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 노동시장 충격, 세대간 이전에 대한 고찰』, 『보건사회연구』 31(2), pp.36~59.
- 황수경(2011),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노동시장 파급효과』, 휴먼뉴딜 종합연구총서 시리즈, 11-05-01.